

[현대화 조준 개혁 재심화]

물류 원가 질적 승격과 효과성 증대로 경제의 고품질 발전 추진

습근평 총서기는 전사회의 물류 원가를 낮추는 것은 경제 운행의 효율을 격상시키는 중요한 조치라고 제기했다. 당중앙 20기 3차 전원회의는 류통체제를 보완하고 사물인터넷을 다그쳐 발전시키며 일체화한 류통 규칙과 표준을 보완해 전사회의 물류 원가를 낮추어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각 지에서는 류통 영역의 원활성을 강화하는 한편 일련의 개혁 조치를 강구해 물류 원가를 낮추고 질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다.

국가철도그룹 우룸치국과 상해의 한 물류기업은 일전에 철도 95306 플랫폼에서 전국 첫 컨테이너 다중 합동운송 ‘단일제’ 운송장(运单)을 발급했다. 이는 물류 원가를 낮추기 위해 철도 분야에서 취한 중요한 조치로서 철도 다중 합동운송 ‘단일제’ 개혁이 탄탄한 한걸음을 내디뎠음을 뜻한다.

2023년 12월, 습근평 총서기는 중앙경제사업회의에서 중점 영역의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고 제기하며 전국 통일대시장의 건설을 다그치고 각종 형식의 지방보호와 시장분할 상황을 타파해 전사회의 물류 원가를 효과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 2월, 중앙재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실물경제의 ‘근맥’인 물류는 생산과 소비, 국내 무역과 대외무역을 연결해주는 때문에 반드시 전사회의 물류 원가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산업의 핵심경쟁력을 증강하며 경제 운행의 효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표했다.

올 7월, 당중앙 20기 3차 전원회의는 ‘개혁을 진일보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데 관한 중국중앙의 결정’을 채택하고 ‘류



남녕국제철도항(2024년 7월 17일 찍음, 드론 사진.)

/ 신화넷

통체제를 완벽화하고 사물인터넷을 다그쳐 발전시키며 일체화한 류통 규칙과 표준을 보완해 전사회의 물류 원가를 줄여야 한다.”고 제기했다.

올 들어 우리 나라는 물류 원가를 줄이고 질과 효과성을 제고할 데 대한 여러가지 정책을 잇달아 제정 발표했다.

중공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일전에 〈전사회 물류 원가를 효과적으로 줄일 데 관한 행동방안〉을 인쇄 발부했다. 〈행동방안〉은 5개 면의 중점 임무 20여가지를 제출했다. 자연자원부는 〈현대 물류의 고품

질 발전을 위한 자연자원 요소의 보장 역할을 강화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하여 4개 면의 정책과 조치 10가지를 제출했다. 이 역시 국가 차원에서 물류의 육지와 해양 사용을 보장하는 첫 전문적인 문건이다.

현재 각지에서는 물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가지 개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전국 첫 일반상품 자원 배치 중추가 일전에 절강성에 자리를 잡으면서 일 반상품 자원 배치 능력을 전면 격상시켰다.

광서에서는 서부 룽해 신통로 연선

에서 해상과 철도 합동운송 로선 173갈래를 개통하고 각 운송 방식의 구간별 수급을 통일 수급으로 전환했다.

안휘에서는 디지털과 플랫폼 봉사를 통해 여러 화물회사의 컨테이너가 동일한 화물선박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선박의 탑재률을 예전의 45%에서 85%로 격상시켰다.

물류 분야의 인프라 시설이 부단히 보완되고 신기술, 신모식이 활발하게 응용되면서 2027년에 가 국내 생산총액에서 잡하는 사회 물류비용 비중이 13.5%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중국조선어방송넷

유엔 사막화 퇴치 회의서 소개된 ‘녕하경험’

〈유엔 사막화 퇴치 협약〉(이하 ‘협약’) 제16차 당사국총회(COP16) 중국판은 12월 4일 오후 첫 비공식 회의를 열어 사막화 퇴치에 관한 ‘녕하경험’을 전세계에 소개했다.

회의는 ‘생태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녹색 부흥을 촉진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실현하는 경로를 탐색하자’를 주제로 결정했다. 회의에서 세계은행 글로벌 환경국 국장인 발레리 하키는 세계은행의 사명은 빈곤을 없애고 살기 좋은 지구촌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며 ‘녕하모식’은 이 사명에 힘을 보태어 살기 좋은 환경을 창조하고 토지의 개선과 경관의 회복을 통해 빈곤을 없애고 번영을 창조하는 로선도를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막화와 황폐화된 땅에서 번영을 이룬 중국은 이 면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며 세계은행은 중국과 파트너로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쌍방은 협약을



사막 퇴치 로동자들이 녕하 중위시 경내의 등그리사막에서 솔모양 그물줄식 모래막이를 부설하고 있다.

/ 신화넷

통해 이러한 경험을 세계 다른 곳에 널리 보급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회의에서 유엔 식량농업기구 립업

국 국장 우지민은 ‘녹색생성’의 건설에서 많은 기술 모식을 총결한 중국이 류사한 문제와 도전에 직면한 국가 특

히는 아프리카 국가와 이를 공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녕하회족자치구인민정부 부주석 류군은 연설에서 녕하는 솔모양 그물줄(刷状网绳), 람조와 모래로 형성된 단단한 물질층(蓝藻沙结皮), 고효율 모목 재배 등 관리 비용이 저렴한 새 기술을 사범 보급하고 ‘일대일로’ 건설에 적극적으로 통합하고 봉사하였으며 ‘협약’ 사무국과 협력 각서를 체결하고 5기의 ‘사막화 퇴치 기술과 실천’ 국제연수반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고 소개했다.

‘협약’ 사무국 혁신처 처장 존스 카리카는 회의에서 ‘협약’ 사무국과 녕하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사막화 퇴치지식관리센터는 이미 실천을 공유하고 연구와 능력 건설을 추진하는 소중한 플랫폼이 되었으며 이는 진정한 남남협력의 본보기라고 말했다.

/ 신화넷

부핀:

중국은 시종 로씨야의 장기적이고 중요한 경제·무역 파트너

로씨야 대통령 부핀은 5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15회 ‘로씨야가 부른다’ 포럼에서 세계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로씨야는 중국과의 관계

를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며 중국은 시종 로씨야의 장기적이고 중요한 경제·무역 파트너라고 말했다.

/ 신화넷

주미 중국대사:

중미 경제무역협력 ‘압창석’ ‘안정기’ 역할 발휘해야

3일, 주미 중국대사 사봉은 미국—중국총상회 시카고분회의 년례 회의에서 계속 중미 경제무역협력의 ‘압창석’, ‘안정기’ 역할을 발휘하여 중미 관계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하고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사봉은 연설에서 일부 사람들이 중국의 영구적인 정상 무역관계 지위를 취소하자고 떠드는 것은 국제 경제무역 규칙을 짓밟는 행위로서 글로벌 무역체제 기초를 흔들리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봉은 관세 무기화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치하는 악순환을 도발하기 쉽기 때문에 이는 전반적인 무역 적자를 줄이기는커녕 생산원가를 높이고 일상적인 지출을 늘리며 통화팽창 압력을 가중시키고 빈부격차를 확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98%의 경제학자들이 높은 관세는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무디(穆迪) 등 국제기구는 관세전쟁이 미국 경제를 손해시킬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고

말했다.

사봉은 미국 친구의 말을 인용하여 중국과의 공급망·산업망을 분리하는 것은 “제 발에 총을 겨누는 것과 같다.”며 무역전은 이미 미국 기업의 목에 맨 ‘다모클레스의 검’(达摩克利斯之剑)이 되었다고 말했다.

사봉은 새시기 중미 량국의 공동 리익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무역, 농업, 마약 금지, 법률 집행, 공공 위생 등 영역에서나 기후변화, 인공지능 등 글로벌 도전에 직면해서나 국제화제거리에서 중미 협력은 모두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서 호혜상생은 중미에 제일 좋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사봉은 중미 량국은 협력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싸우면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을 력사가 충분히 증명했다며 ‘새 령전’은 일으켜서도 안되고 일으켜도 이길 수 없다. 중국에 대한 제재 또한 현명하지 않으며 더우기는 실현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

/ 신화넷

한국 검찰, 윤석열 립건 조사

한국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8일 오후 대통령 윤석열을 혐의 피의자로 립건했다고 밝혔다.

한국 국회는 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으

나 투표에 참가한 의원수가 모라자 소추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최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1일에 다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 신화넷

한국 국회의장:

총리와 여당의 대통령 권한 공동 행사는 위헌



12월 8일, 한국 서울역에서 민중들이 한국 집권당 대표 한동훈과 국무총리 한덕수(왼쪽)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며 생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 신화넷

8일, 한국 국회의장 우원식은 “대통령이 위헌했을 경우 탄핵이 유일한 법적 절차”라며 “국무총리와 집권당이 대통령의 권한을 공동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원식은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한국 집권당인 국민

의힘의 대표 한동훈과 국무총리 한덕수는 공동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고 대통령 윤석열은 퇴진전에 더는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은 또 집권당 대표는 총리와 정기적으로 회동하여 국정 공백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 신화넷

한국 검찰, 전 국방장관 김용현 긴급체포

8일, 한국 검찰은 전 국방장관 김용현을 긴급체포했다.

한국 연합뉴스는 한국 검찰 특별 수사본부가 8일 오전에 전 국방장관 김용현을 긴급체포하고 그의 후

대폰을 압수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의 5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 검찰은 이미 ‘내란죄’ 혐의 피의자로 김용현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 신화넷

수리아 정부군: 대통령 정권 종말

8일, 수리아 정부군은 수리아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 이미 종말됐다고 선언했다. 동시에 수리아 반대파 무장인원들도 이날 텔레비전 연설에서 그들이 “수리아 수도” 다마스쿠(大马士革)를 해방하고 아사드정권을 전복시켰다.”고 말했다.

8일 저녁, 로씨야 파스통신에 따르면 바샤르 알 아사드와 가족은 이미 로씨야 수도 모스크바에 도착했으며 로씨야는 그들에게 비호를 제공했다.

사진은 12월 8일, 수리아 다마스쿠 거리에 모여든 당지 민중들.

/ 신화넷

